

신안군 생물자원 서식지 조성, 어민 소득향상 나선다

지도읍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착공...새우·개체굴 종자 생산·보급 해상풍력단지 내 인공어초 등 조성...서식 환경 만들어 어족자원 확보

신안군이 섬과 빛바람의 힘으로 대혁신 변화를 가져올 신재생에너지 생산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해상풍력단지 조성 때 인공어초 등 생물자원 서식지를 만들어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나설 계획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신안군은 해상풍력단지 내에 다양한 어류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어족자원을 확보하고 어민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소득원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다목장과 연계해 매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치어 대량 방류사업으로 어족자원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개체굴과 해조류 양식을 위해 발전기를 설치할 때 발전기 주변에 파이프를 설치하고 설치한 파이프에 수확식 개체굴 또는 해조류 양식장 시설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확보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군은 앞서 지난달 21일 지도읍에서 해양수산부장

관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00억 규모의 최첨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착공식을 갖고 기반 조성에 나섰다.

지도에 들어서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전국 최초 ICT기술을 접목한 양식시스템으로 새우와 개체굴 종자를 생산하고 널리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된다.

이곳에서 생산된 종자를 해상풍력발전단지 내 수산물 자원 확보를 위한 구조물에도 일부 보급 양식하면 어민 소득원을 한층 더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안군이 특화사업으로 삼은 개체 굴은 다른 양식 품종보다 관리와 노동력이 적고 180일 이상 되면 일반 굴보다 10배 정도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경제성이 뛰어난 양식업이다.

군은 이를 위해 300만평의 면적에 미네랄을 먹고 자라나는 개체굴 바다목장을 만들어 누구든 희망하는 주민들에게는 분양해 준다. 분양을 받기 위해서



지난 21일 지도읍에서 열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의 착공식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서삼석 국회의원과 지역주민 등 참석자들이 착공을 일리는 첫 삽을 뜨고 있다. (신안군 제공)

는 군에서 운영하는 개체굴 양식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 분양을 신청하면 종패를 무료로 제공해 군민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제 어업인들도 기존 양식업에 만족할 수 없다면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가는 등 기후변화 따라 대

체하고 저비용 고소득을 창출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군에서 권장하고 있는 어업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면서 해상풍력단지 수산자원 조성 시설물과 연계해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개척

해 귀어인들이 늘어나 인구소멸 대책과 어가 소득에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안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모두가 적극 참여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첫 위판

수협, 복항에 전국 최대 저온 위생시설...5000상자 거래

86년의 목포 대반동 선창 시대를 마감하고 목포 복항으로 이전한 목포수협이 1일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이하 지원단지)에서 첫 위판을 시작했다.

이날 위판량은 어선 30척이 잡아 온 갈치, 민어, 홍어 등 5000여 상자다.

지원 단지는 총 10개동으로 대지면적 10만 1951㎡, 연면적 2만 7917㎡이다.

총공사비 752억원(국비·지방비 459억원, 자담 293억원)이 투입됐다.

특히 지원단지 중 선어위판장은 지상 2층, 연면적 1만 747㎡이다.

1층에는 선어 및 저온위판장 면적 8776㎡, 2층은 중도매인과 어업인 협회사무실, 관람로 등 1971㎡로 전국 최대규모의 청정 저온위생 위판시설이다. 그동안 낡은 시설과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 등 품질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룡 목포수협 조합장은 "많은 상인과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정위생 위판시설이 전국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해남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을 찾은 아이들이 바닥분수에서 신명나게 뛰놀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 고천암 생태공원' 신난다 바닥분수

5일부터 어린이공룡대축제 9월 4일까지 매주 금·토·일 운영

해남군이 해남어린이공룡대축제에 맞춰 오는 5일부터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바닥분수를 운영한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은 자연과 인간의 소통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어린이놀이터, 피크닉장, 바닥

분수, 발담금시설, 연꽃습지, 갈대담방로, 철새 탐조대 등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기간은 오는 5일부터 9월 4일까지이며 매주 금, 토, 일 주말동안 운영한다. 이용시간은 오전 11~12시, 오후 1~2시, 오후 3~4시 총 3회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분수대 저수조 청소 및 용수 교체 등의 관리를 위해 운영하지 않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 거동 불편 노인에게 보청·보행기 지원

영광군이 난청과 거동으로 불편을 겪는 만 65세 이상 노인 30여명을 대상으로 보청기와 보행기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광군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다.

난청 진단기준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노인성 난청진단을 받은 노인이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

을 통해 어르신 보청기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군은 자체 예산 200만원을 확보해 노인 10여명에게 보청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이나 영광군청 가정행복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난청이 있으나 지원 받지 못했던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하지만 보행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노후생활에 도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

완도 수산식품, 국제식품전시회서 인기

11개 기업 공동관 운영 전복 차우더·광어죽 등 관심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완도 수산식품이 서울 국제수산물전시회에서 인기를 끌었다.

완도군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서울국제수산물전시회'에 지역 11개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해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전시회에는 제이에스코리아, (유)완도세계로수산, 완도다영어조합법인, 완도고급바다(주), (주)해정정, 유한회사 해성인태내셔널, 우성수산, 대한불산, 완도전복주식회사, 완도삼영어조합법인, 흥일식품 등 11개 기업이 참가해 완도군 공동관을 운영했다.

완도 업체들은 전복 차우더와 광어죽, 해초 국수, 압면 조미김 등을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전시회 부대행사로 열린 '한국 지속가능 양식 수산물 세미나'에서 완도군과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는 수산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기도 했다. '서울국제수산물 전시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식품 전시회로 국내외 수산 바이어와 유통업체, 수산식품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인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마다 공동관을 운영해 수출기업의 시장 개척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며 "상담이나 협약이 실제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ihung@

영암 '모토피아 스포츠 관광 특화사업' 날개

공모사업 선정...30억 확보 F1전국마라톤 등 유치 계획

영암군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2023년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문체부의 이번 육성사업은 지역의 핵심 관광자원과 스포츠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은 '영암 모토피아 스포츠 관광 특화사업' 1차 서류,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2023~2025년 사업비를 투자한다.

영암군은 국내 유일의 국제자동차연맹(FIA) 1등급 국제자동차경주장과 월출산 등 관광자원을

연결해 '월출산 전국 트레일러닝대회', '영암F1전국마라톤대회', '영암F1전국드루에슬톤대회' 등을 개최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대표축제인 왕인문화축제, 월출산 국화축제, 마한축제 등과 다양한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들도 접목해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볼거리와 즐길거리도 제공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스포츠관광으로 지역소멸 극복,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들이 살고 싶은 영암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무안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영농철을 맞아 양파 수확을 돕고 있다. (무안군 제공)

양파·마늘 수확 도울 일손 어디 없소

무안군, 자원봉사자 모집... 15일~6월15일 일손 지원

전국 최대 양파·마늘 주산지인 무안군이 수확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오는 18일까지 농업기술센터(농정과·친환경농업과)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며, 일손

지원 기간은 15일부터 6월15일까지다. 자원봉사 대상 농가는 봉사활동 3일 전에 신청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공무원의 경우 상시 학습 시간도 인

정된다.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교육 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혜택도 주어진다.

이기회 무안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양파·마늘 수확과 모내기 준비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며 "자원봉사 모집 기간에 많은 도시 지역민들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